

대법원 2024도6366 준유사강간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종교단체의 여성간부들인 피고인들이 교주의 피해자들에 대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범행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는 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피고인 1, 2, 3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4,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피고인 4, 5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636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 또는 총재인 A는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여 왔음
- A는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 2. 18.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본범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
 -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24노15, 2024전노2(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4. 10. 2. 징역 17년 등이 선고되었고, 상고기간 진행 중임
- 피해자들은 선교회 교단에 들어가 A를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옴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1의 피해자 1에 대한 준유사강간

- 피고인 1은 A가 피해자 1을 추행·간음할 것을 잘 알면서 피해자 1로 하여금 A의 옆에 눕게 하고, 이후 A가 피해자 1을 유사강간함
- 이로써 피고인 1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1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유사강간함

■ 피고인 2의 피해자 1에 대한 준유사강간방조

- 피고인 2는 A가 피해자 1을 성폭행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 1을 수련원으로 데려가고, 이후 A가 피해자 1을 유사강간함
- 이로써 A가 피해자 1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을 유사강간하고, 피고인 2는 이를 방조함

■ 피고인 3의 피해자 2에 대한 강제추행방조

- 피고인 3은 피해자 2에게 A의 추행이 마치 주님의 은총인 것처럼 세뇌하고, A가 피해자 2를 추행·간음할 것을 잘 알면서 A에게 데려가고, 이후 A가 피해자 2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3은 A가 피해자 2에게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는 말을 그대로 통역함
- 이로써 A가 피해자 2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2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3은 이를 방조함

■ 피고인 4의 피해자 1, 2에 대한 준강간방조 등

- [피해자 2에 대한 준강제추행방조] 피고인 4는 A가 피해자 2를 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A가 피해자 2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함으로써 피고인 4는 준강제추행을 방조함
- [피해자 1에 대한 준유사강간방조] 피고인 4는 A가 피해자 1을 성폭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 1에게 A가 혼자 있는 교정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A가 피해자 1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함으로써 피고인 4는 준유사강간을 방조함

- **[피해자 1에 대한 준강간방조]** 피고인 4는 A가 피해자 1을 성폭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 1과 A만 방에 남겨둔 채 방 밖에서 지키고, A가 피해자 1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피고인 4는 준강간을 방조함

▣ 피고인 5의 피해자 1에 대한 준강간방조

- 피고인 5는 A가 피해자 1을 강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1을 응접실로 안내한 뒤 응접실 내 병풍 뒤로 자리를 피했다가 A의 준강간 범행이 끝나자 다시 병풍 밖으로 나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준강간을 방조함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들 모두 유죄

- 피고인 1 ⇒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 피고인 2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피고인 3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피고인 4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 피고인 5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3년

▣ 원심

● 피고인 1, 2, 3 ➡ 쌍방향소기각

- 피해자들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인정됨

-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1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 3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4, 5 ➡ 파기, 무죄
 - 피고인 4, 5의 지위 및 활동내역만으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인 4, 5에게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즉 종범의 고의와 방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준유사강간죄 등에서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의미(종교적 세뇌의 경우)
- ▣ 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
- ▣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1, 2, 3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 4, 5에 대한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무죄판단 부분)
 -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 피고인 1, 2, 3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판단 부분)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

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